

할 생각이이다.

瑩源寺址와 出土遺物

尹 容 鎮

今年 五月 八日 密陽邑 龍平洞居住 金榮華氏外 二人으로부터 古尊을 받은 靑銅盒 及 高麗磁器를 引受 및 出土現場의 踏査를 爲해 五月 十二日과 二五日 出張하였던 바 그 結果를 紹介하는 바이다.

密陽邑에서 表忠寺로 가는 車路를 따라 約四km쯤 가면 山外面 山外國民學校에 이른다. 이곳에서 南쪽으로 건너 丹場川을 건너면 活城洞二區部落이 있는 溪谷入口에 들어서게 된다. 溪谷入口에서 南쪽을 바라보면 一〇〇m쯤 멀리에 洞리가 있고 이 洞리를 지나면 溪谷이 넓어지면서 平坦한 部分을 利用하여 논밭을 만든 곳이 있다. 이 곳이 寺址이다. 東國輿地勝覽에 「瑩源寺在慈氏山、有高麗李齊賢所撰僧 寶鑑碑銘……」이 있다. 朝鮮寶物古蹟調査材料에도 瑩源寺라 稱하는 것이 活城里後 溪谷山麓에 있다 하며 基石 三個가 있다 한다. 또 이 곳을 密陽邑誌에 慈氏山이라 記載되어 있는 것과 洞里人들의 口傳도 瑩源寺址라 하는 여러가지 事實로 이 寺址가 바로 高麗時代의 瑩源寺였음을 알 수 있다. 깊은 溪谷을 끼고 주머니처럼 둘러싼 高山等으로 보아 寺址로서는 좋은 立地였었다. 이곳에 現存하는 代表的 遺物을 紹介해 본다. 于先 洞里東南端에 元來八角圓堂式이라 생각되는 浮屠 一基가 있다. 이것은 元來 부도골(浮屠谷)이라 稱하는 溪谷에 흩어져 있었던 것을 洞里人이 이곳에 모아 세웠다 하며 相輪部와 屋蓋石 中臺石外는 自然塊石을 塔身代身으로 써서 Cement로 附着시켜 두었다. 木造樣式으로 된 八角屋蓋石仰蓮 及 飛雲紋이 새겨진 두 中臺石 또 八角基壇石 等은 그 工作이 精巧했으나 塔身分의 紛失及 構成遺物이 各各 別個의 것이란 데 크게 遺憾스러웠다. 現高는 二·七m、이 浮屠에서 約 一五〇m쯤 南쪽으로 溪谷을 따라 들어가면 築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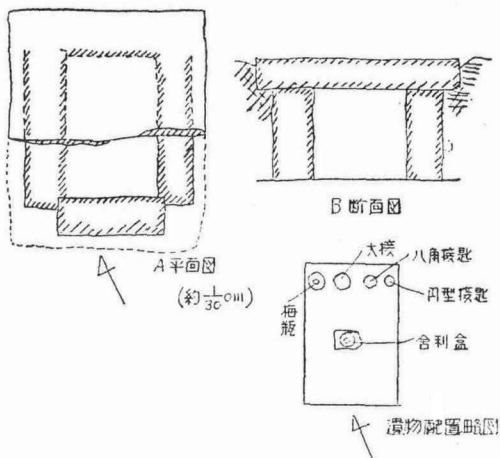
가 남아 있고 築臺 밑에 石佛坐像 四軀가 一列로 安置되어 있다. 이것亦是 元來는 溪谷여기 저기에 흩어져 있던 것을 이곳에 모아서 모서 두었다 한다. 破損 및 磨滅이甚하여 佛尊名은 알 수 없으나 其中 一軀는 肉髻가 없는 螺髮의 頭와 通肩衣 及 結跏趺坐한 如來佛이 있었다. 그 如來佛 뒤에는 別個의 舟形石板光背를 두었으며 陽刻의 蓮花紋에다 各二條로 한 二重의 圓光을 새긴 頭光 그리고 光背頂部의 三尊化佛을 爲始해서 兩側端及 兩下側端에 各各 化佛이 새겨져 있었다. 이들은 좋은 彫刻의 솜씨였으며 그 樣式도 特異한 바를 보였다(光背의 地上高 一四五cm 最大幅 一三三cm). 佛像이 있는 곳에서 南쪽 約一〇m地點인 築臺의 側部에 螭首와 龜趺가 分離된 채 放置되어 있다. 龜趺에는 龜甲文이 새겨져 있고 碑身을 받치는 突出四角碑座에는 側面에 雲紋과 覆蓮을 새겨 두었다. 螭首에는 前後面에 各各 四龍과 火焰紋이 새겨졌으며 前面中央에 圓形으로 새긴 部分에 「佛殿之記」라 새겨져 있었다. 製作手法는 高麗後期 것으로 보인다. 龜趺의 長은 二m 最大幅은 一七四cm 螭首의 橫長은 一五七cm 厚 五六cm 中央部 高는 六五cm이다.

龜趺가 있는 곳에서 다시 東쪽으로 올라가면 急傾斜를 이루기 前에 완만한 高地帶가 있다. 螭首에서 六〇—七〇m쯤 된다. 이곳에 一邊이 各各 一m 及 一·四m 厚 二〇cm의 四角粘板岩質의 平平板石一枚가 오래 前부터 露出되어 있었다. 洞里人들은 이 板石을 「떡바위」라 하며 自然石인 것으로 여태까지 보아 왔다 한다. 그러했던 것을 今年 五月 三日 前記 金榮華氏外 二人이 산에 나무하러 왔다가 板石 밑이 崑崙하여 비어 있는 것을 알고 板石을 깨트려 보았다 한다. 그래서 아직 無心히 보아 넘겨왔던 것이 實은 石室의 蓋石이었던 것이다. 石室은 四壁이 모두 花崗岩을 平平하게 안팎을 다듬어 세웠고 바닥은 粘土로 다져 두었다 한다(圖1). 石室內部의 高는 六六cm 長은 九八cm 幅은 六五cm 壁板石 厚는 三〇cm로 되어 있고 長軸의 方向은 南西間이었다.

發見者의 證言으로 바닥 한가운데 平平한 自然의 水成岩小板을 두어 그 위에는 靑銅盒을 安置하고 東北쪽의 壁(山峰쪽)과 並行해서 高麗磁器 八點을 두었다 하며 南西쪽(溪谷쪽)이며 蓋石을 破壞한 部分)바닥에는

圖1. 遺物出土石室見取圖

圖1 遺物出土石室見取圖



아무것도 없었다. 靑銅盒은 그 뒤 五月十二日 本人이 現地 調査時 舍利盒이 있음이 밝혀졌다.

磁器의 配列狀況은 左側石室隅에 靑磁黑白象嵌竹鳥花紋

梅瓶一個(高三〇·五cm)가 있고 右側으로 鳥牧丹蓮紋大接과 蘭菊雲紋大接이

(〇·六cm) 그 右側에 菊花紋八角接匙(口徑一·七cm) 三點이 역시 附겨 놓였고 끝에 菊花紋圓型接匙(口徑一〇·八cm) 二點이 附겨 있었다. 그런데 이 石室이 元來 어떠한 外形狀態에서 埋藏되어 있었는가 하는 問題인데 二次에 걸친 調査結果 이것을 解明하는 他遺蹟을 發見하였다. 그것은 이 石室에서 一〇〇m 溪谷과 並行해서 山腹을 따라 들어간 곳으로 亦是 앞石室의 立地와 비슷한 完만한 地帶가 있고 여기에 一段으로 된 八角基壇石이 있다. 遺存狀態는 基壇石上部의 石物은 紛失되어 없고 八角基壇石은 一枚로 되어 있으며 下段基石은 中央에서 갈라 떨어져 있었으며 基壇石直下는 앞의 石室과 같은 構造樣式을 가진 小石室이 있었다.(圖2)

또 이 基壇石에서 다시 南쪽으로 山腹을 따라 가면 東쪽으로 溪谷이 굽어지는 곳에 부도골(浮屠谷)이 있다. 이곳에 第一의 石室等과 같은 構造의 石室이 一個 側壁을 平扁한 自然石으로 만든 것이 一個以上이 있으며 周邊에 八角基壇石及 屋蓋石等이 散在해 있었다. 洞里人들의 證言에 依하면 이 石室 위에 元來 浮屠가 있었는데 約四〇年前 日人이

三基分을 當時 三〇圓을 주고 移轉해 갔다 한다. 勿論 行方은 알 길이 없다. 이러한 證言과 現存遺物 位置 等으로 보아 石室위에 浮屠가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事實은 從來 一般的으로 舍利裝置는 塔身部에 安置한다는 概念에 對한 異例를 만들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第二의 石室과 浮屠谷의 石室內部에 對해 付記할 것은 第二의 石室內에서

는 頂骨과 鐵釘이 나왔을 뿐이며 勿論 內部는 이미 손을 낸 痕蹟을 볼 수 있었으며 浮屠谷의 石室은 모두 盜掘된 듯하며 內部를 整理해 보아 도 아무 것도 發見되지 않았으며 모두 흙이 半程度 쌓여 있었다. 또 浮屠谷의 石室周邊은 한 邊을 五m 程度로 네모지게 돌담을 쌓은 흔적이 있으며 外見上 四個所를 찾아 볼 수 있었다. 如何間 浮屠構造樣式上 重要한 것이라 보아 以上 大體 紹介하는 바이다. (여기에 소속된 사진 二枚는 下卷 一五六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漢沙里遺蹟의 一磨石器

崔淑卿

지난 四月 二十七日 廣州郡 東部面 漢沙里 櫛文土器遺蹟에서 寫眞I과 같은 재미 있는 磨製石器를 採集하였다.

漢沙里遺蹟은 一九六〇年 여름 發見되어 報告되었던 바 ① 그 뒤 年年 雨期마다 漢江의 浸削으로 遺物包含層이 무너지며 豊富한 土器片을 들어 냈던 것이다. 그러나 學術的인 調査란 金元龍博士가 넣은 「트렌치」程度로 本格的 調査를 거치지 못한채 遺蹟이 거의 무너져 버리고 들어난 遺物들은 여러손에 흩어지게 되어 마치 乙丑年 洪水에 露出되었던 岩寺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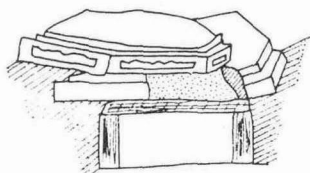


圖2. 第二石室(基壇下)埋藏狀況